

2 뉴스

철학과 교수 발언 후폭풍

김륜희 기자 poetry@khu.ac.kr

철학과 최정식 교수 발언에 동문회 성명서가 나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내에서도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교수는 지난 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고 재차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사태가 알려지자 김병희(철학 1991) 동문을 비롯한 철학과 졸업생 9인은 지난 1일 (또다시 역사 왜곡 발언으로 철학과 명예를 훼손한 최정식 교수에게 졸업생의 이름으로 망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철학과 동문회에서도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에서 모든 경희가족에게 알립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 해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 및 학교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과 교수의 문서화된 공식 사과 및 유사 사안에 대한 학교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동문회는 이를 총장실, 인사처, 감사팀, 문과대학(문과대)과 철학과에 송부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에 집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졸업생



지난 10일 철학과 동문회는 문과대에 대자보를 게시해 최 교수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김륜희 기자)

전원이 학위를 반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이어갔다.

철학과 졸업생 9인 역시 최 교수의 역사 왜곡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동참한 김병희(철학 1991) 동문은 "가르치는 교수의 수업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학생들의 교육권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총민주동문회도 (철학과 최정식 교수는 역사의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경희학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경희총민주동문회 송명근 사무국장은 "최 교수가 강단의 권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사태가 철학과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어느 학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공론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성숙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내부에서 최 교수의 조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무처 교무팀은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교무팀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없지만 최 교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총장과 부총장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장실 역시 "최 교수와 관련해 감사팀과 여러 부서에서 조치 중이다"며 "곧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학교

차원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과대 박인철 학장은 최 교수 발언에 "수업 중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학생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학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문과대 내부에서도 대책을 수립 중이고, 비슷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기에 개설된 최 교수의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는 인원 미달로 폐강됐다. 철학과 학생 A 씨는 "올해 최 교수가 작년과 똑같은 발언을 한 상황과 독단적이라고 소문난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고려했을 때, 최 교수가 퇴임하는 올해까지 최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의 녹음 거래 행위 처벌 대상

주은서 기자 aroundlucy@khu.ac.kr

학기가 시작되면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강의 녹음 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강의 녹음 배포와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 에타에 올라온 강의 녹음을 거래하는 글은 네 개였으며 이 중 세 건은 기프트콘 등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의 녹음 배포 혹은 거래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학 강의는 어문 저작물로 분류되며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강사는 해당 강의의 저작권자이다. 조정원(지리학 2023) 씨는 "에타에서 시험기간 강의 녹음 거래 글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학생지원센터 측은 "관련 문제를 따로 다루는 부서는 없으며 단과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리학과 강전영 교수는 "학생에게 녹음본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안내하고 있다"며 "책과 강의 자료로 복습을 진행한 후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3-2학기

경희꿈도전 장학

지원대상

- 2023-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23-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신청제한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도전분야

- 창업 / 학술연구 / 자유주제 / SDGs(경희정신 구현)
- 연구분야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 등 모든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선발방법

-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위원의 1.5~2배수 선발
- (2단계) 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 + 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100만원~400만원

- 개인/팀이 본인의 도전주제 및 실행계획에 따라 희망장학금액 선택
-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장학금액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시 수혜금액의 1/2 선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잔여장학금의 1/2(수혜금액의 1/4)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후 심사를 통해 잔여 장학금(수혜금액의 1/4) 지급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라도 그 과정 및 결과물이 부실할 경우 최종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발표시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정정 절차는 별도로 없음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장학금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2023.09.11.(월) 09:00 ~ 2023.10.06.(금) 24:00
-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선발일정(추후 변동 가능)

내용	일정	비고
1) 장학신청/서류제출	2023.09.11.(월) 09:00 ~ 10.06.(금) 24:00	
2) 면접평가일	2023.10.27.(금)	학생지원센터(장학) 홈페이지 공지
3) 선발결과 발표	2023.11.03.(금)	
4) 1차 장학금 지급	2023.11.13.(금)	